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1월 4일 (제77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다시 시작하자! 30년!

Let's do 30 more years with Jesus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예수중심교단 동지들이여!

이제 우리 밝아오는 2015년부터 향후 30년! 새로운 삶의 도면을 함께 그려봅시다.

새로운 시작은 모두 백지 0으로 부터 시작하여야 잘못된 관행과 습관이란 덧을 끊어 버릴 수 있죠.

못된 관행과 습관은 나와 우리 앞날의 발전과 번영을 가로막는 암적 요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두렵게 하며 신경을 무디게 하는 불멸의 'Virus' 군입니다.

우리 삶의 'Innovation', 개혁과 혁신의 약을 먹고 다시 30년 새롭게 시작해봅시다.

미지의 세계에 매력을 느끼는 자에게 새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도

도전, 열정, 모험, 믿음, 끈기 없이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회 30년은 두려움 없는 도전과 모험, 호기심과 끈기의 산물이었습니다.

사람이란 본시 믿음과 목표와 사랑이 있으면 밝고 젊어지고, 불신과 목표가 없고 미움 때문에 늙고 피폐해진다죠.

자신감은 성공! 두려움은 멸망! 희망에는 끈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과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새 힘이 솟고 자신감이 생기죠.

또 실망과 좌절이 있으면 먹구름이 몰려오지만, 정작 우리가 알 것은 먹구름 뒤에 단비가 있다는 것이죠.

인디언들과 사막은 먹구름을 보면 실망이 희망으로 변해 춤을 추며 노래한답니다.

이제 마음을 털어내어 비우고 평화와 축복의 단비를 받아봅시다.

2015년 한바탕 멋지게 웃어봅시다.

이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사막 같은 세상사, 기쁨으로 나무를 키워봅시다.

먼~ 훗날, 만민의 높임 속에 단 열매를 딸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진리 중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과 불행, 성공과 멸망의 제조기는 바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부디 우리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뒤로 하며

朋友 이초석 목사 (Rev. Cornerstone Lee)

도전과 모험 없이는
미래가 없다 李礎石 목사

Without challenge and adventure,
neither the future promising!

Rev. Cornerstone

2015 ~ 2045
우리 다시 시작하자 30년!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민13:25~14:38)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우리는 지난주일, 예수중심교단의 30년의 역사를 함께 영상으로 봤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저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소경을 눈 뜨게 하고,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합니까? 어떻게 제가 비를 멈추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 18:27).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분은 90세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나게 했고, 흰무늬 양에게서 얼룩무늬 양떼를 만드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사자의 입을 봉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도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는 분입니다.

제가 목회 30년 동안에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 목회를 성공으로 이끈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면 제한을 받으시나요? 받으시다마요.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기에 제한을 하면 제한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불찌여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문을 열어야 그 분이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안

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14:8~9)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의 일입니다. 녀석이 무거운 것을 옮기느라 한참동안을 끄꿍 거리고 있었습니

다. 그것을 바라보다가 제가 아들에게 다가가 "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안 하는 거니? 아빠는 금방 옮겨줄 수 있는데."라고 했더니 녀석이 그제야 "아빠, "

이것 좀 옮겨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가 그것을 번쩍 들어 옮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니다. "아휴,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도 되나?", 또는 "이건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어느 경우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던 자들이 배고플 것을 염려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 때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주 부적절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요?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뭘 사다 먹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고, 열 두 광주리나 되는 부스러기를 남기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기적을 맞볼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는 돌을 옮겨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 사 람 들이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위꼬리만 한 지식,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질하고, 말씀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으로 봐서는 안 돼.', '내 상식으로는 안 되는 말이지.',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스운 일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저울질하다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4~5). 잘나빠진 너의 지식, 경험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배운 지식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립보서 3:8~9).

좀 배웠습니까? 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을 당신의 보좌 삼으시고, 땅을 당신의 발등상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이란 생각이 있을 뿐

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예수중심교단은 '도전과 모험이 없는 미래가 없다'는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를 내걸고, 앞으로 30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요즘 잠이 안 옵니다. 30년을 계획하느라 마음이 설레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맘껏 펼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제 말과 계획을 들으면 공상이다, 뻥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 칠산리에서 한 명을 놓고 시작한 예수중심교회가 오늘날 글로벌 성도들을 갖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30년! 예수중심교단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성경에도 입을 크게 벌려라, 큰 생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의 생각이 작다면, 우리가 입을 작게 벌리고 있다면 고작 그것밖에 부어줄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릴 때 장독의 크기만큼 빗물이 받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뭇별을 보라고 하셨는지 잘 생각해 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병에서 낫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건 안 돼." 라고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멕시코 메리다 집회

대접을 받고자 하는가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

열면요? 못 들어가지는 않지만, 안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둘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곳을 똑같이 보고 온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그 중 열 사람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니 가나안 땅 입성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열 사람은 스스로 한계를 긋고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사도의 길,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내 나이 80이다. 나는 6·25사변 전,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시골의 작은

교회 주일학교에 다닌 것이 내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6·25사변 이후 교회에서 집사로 일하다가 전도사가 된 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28년 만에 바울과 같은 사도를 만났는데, 그 분이 바로 사도 이초석 목사님이었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만난 즉시 감리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예수중심교회로 왔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목사나 전도사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분, 이초석 목사님만 따라가면 저 천국에 넉넉히 가겠구나!’ 하고 온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이초석 목사님의 가르침과 나타나는 능력과 권능을 보니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고 사도 바울이 한 것과 같기에 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첫째가 사도요 둘째가 선지자요 셋째가 교사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자겠느냐(고전12:28~30)”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려고 지난 이십여 년을 목사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또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목사님과 가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사도된 바울은(갈1:1)”, 또 말하기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갈1:12)”라고 하였으니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과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뿐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과 많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초석 목사님께서도 사도 바울 같은 능력도 받으셨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도 받은

것으로 우리는 듣고 보아서 압니다.

여기에 이초석 목사님께서도 사도가 되시는 증거와 표가 있으니 모든 것을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고후12:12). 사도가 되시는 본인에게는 험악한 길이 아닐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를 만나고 모신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나는 믿고, “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이 받은 복을 길 이길이 지킬지아다.” 하면서 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고 이초석 목사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4:9).” 우리는 총회장 사도 목사님께 보고 듣고 받고 배운 것만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요20:22~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

을 사도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니 총회장 사도 목사님이 더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총회장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을 데리고 3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은 말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남은여생 사도의 길을 또 가실 때에도 늘 건강하신 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해오신 것과 같이 또 전하시기를 기도원 직원들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기도원 원장 권천국 목사



앞으로 전진하자! 예수중심교단이어!

어언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979년경, 서울 가리봉동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의 전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시골교회에 가끔 가곤했지만,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는 권사님의 전도 이후였습니다.

그 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던 중, 제수씨로부터 이초석 목사님의 ‘성령의 역사’ 테이프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허나 눈으로 본 이상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본 교회에 나가고 금요일에는 학생체육관으로 다니며 성령의 역사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주저 없이 인천 송의동 한국예루살렘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위

의 사람들로부터 ‘왜 하필 이단교회를 다니냐며 회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받은 자 외에는 알 리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체험한 이상 저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주일이 기다려졌고 일생에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어려움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나에게는 일생일대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산상집회 중 총회장 목사님께서 “인천교회를 옮겨야 하는데 국 집사(現 장로), 염 집사(現 장로)하고 인천교회 자리 좀 알아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말씀이라 어리둥절했지만, 바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인천의 여러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군데 장소로 압축되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장로가 운영하는 공장이 나왔고, 하나는 영창약기자리, 또 하나는 지금의 교회자리입니다. 목사님께서 최종 결정하시기 위해 세군데 현장을 답사하시고는 ‘현재의 자리가 대로변이고 땅 모양도 좋고 이게 괜찮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먼저 꿈을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식당입구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가 명함 3장을 목사님께 드리니 “알았어.” 하시며 그것을 주머니에 넣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세군데 중 목사님을 통해 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예비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저의 미약한 믿음이지만 저와 염 장로님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저는 일생일대에 이런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한 후 곧장 성전건축현장으로 달려가 건축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회와 희열을 느꼈습니다. 어느 덧 회사보다 성전건축현장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동참을 보면서 감개무량함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추운 혹한 속에서 어느 누구 게으름 피는 이 없이 일사 분란했습니다. 성전을 우리 손으로 건축하게 됨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

렸습니다. 아울러 저 개인적으로는 성전 봉헌예배에 앞서 테이프 커팅 식에도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흥분됩니다. 이어 수원교회를 건축하고 오늘에 이르니 어언 예수중심교회가 30주년이 되었고, 미약하고 부족한 저도 그 역사의 물결을 함께 탔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사님 말씀처럼 새로운 30년을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결코 가벼이 갈 수 없는 길이라 봅니다. 우리 모두 총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새롭게 출발합시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장로회장
국길현 장로



감동과 표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필리핀 바탕가스 목회자 세미나

지난 12월 초 한국을 찾은 필리핀(Philippines) 바탕가스(Batangas)의 아더 곤잘레스(Arthur Gonzales) 목사의 요청에 따라 방문한 필리핀은 추운 한국과 달리 무더운 날씨였다. 게다가 국민들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차량이 급격히 늘었는지 도로는 하루 종일 지옥 같은 교통체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경제성장의 결실을 사회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지 않고 어디로 흘러버리는지, 만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교통체증으로 유발되는 엄청난 비용들이 이 나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야 말 것이다.

수도 마닐라(Manila)에서 남쪽으로 약 3시간을 달려 바탕가스에 도착했다. 새로 건축한 아더 목사 교회부터 방문하였다. 아직 다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세미나가 진행 중인지라 교회는 젊은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아더 목사는 따뜻한 포옹으로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환대해주었다. 특히 미처 생각지도 못한 갈비탕에 김치는 그가 얼마나 정성스레 목사님을 대접하고 있는지 알게 했다.

목사님은 세미나를 통하여 목회자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16년 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룬 아더 목사에게 목사님의 목회경험을 들려주시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나 수백마디의 말보다 단 한 번의 모본된 자세가 그에게 깊은 가르침이 되었을 것이다. 세미나를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더 목사는 감사료를 목사님께 드리려했다. 목사님으로서는 당연한 거절이었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목사님은 조용히 그 이유를 설명하셨다.

"나는 사지가 마비되었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께 절대로 사례를 받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약속은 곧 생명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아더 목사는 '세상에 이런 목사님은 처음 보았다'며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거렸다. 옆에 함께 있던 미국의 더글라스(Douglas) 목사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들은 번갈아 목사님을 끌어안으며 감사를 표했다. 세미나를 통해 들었던 많은 가르침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바탕가스 목회자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치고 우리는 신민호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마닐라 예수중심교회를 찾았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 시끄러운 상태였고 성도들도 술렁이고 있는 듯하였다. 목사님은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는 것으로 지새우시며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셨다.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 에 응답하사 교회를 시끄럽게 하던 무리들을 잠잠케 하였고, 드디어 분명한 표적으로 이 마닐라 예수중심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

목사님은 정죄하는 부정의 세력이 되지 말고 교회를 살리는 긍정의 일꾼들이 될 것을 강조하시던 중, 성령에 감동되어 단호히 선포하셨다.

"이 교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운 예수중심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를 깨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가 있을지어다. 거들 경고하는데 만일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의 편이시지 결코 스스로를 깨끗하다 하며 남을 정죄하는 무리들의 편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세력들에 맞서 이 교회를 지켜야합니다."

그리고 다함께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처처에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기 시작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다.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7년 동안 견지 못하던 한 여인이 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단에 올라와 목사님께 안수를 받는 순간 다리가 펴지며 걷게 되었다. 그녀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목사님을 부둥켜안았다가 뛰고 춤추

더니 목사님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연신 손으로 닦아 자기 얼굴에, 다리에 바르고 있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동안 속에서 끓고 있던 모든 문제와 갈등들이 한꺼번에 일소되는 순간이었다.

정말 멋진 하나님! 목사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심을,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10배 부흥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말씀하셨다.

또한 목사님은 신민호 목사와 유상진 목사를 격려하셨다.

"필리핀은 비행기로 4시간 정도에 시차도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이다. 또한 가톨릭의 나라다. 이미 복음이 심기어진 남미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로 가득한 곳이다. 분명히 남미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보자."

2014년을 명작으로 마무리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지난 한 해 동안 기도과 물질로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7년만에 걸었다

형님 덕분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각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집에 목사님은 돌연변이였습니다. 사업을 잘하시던 형님이 갑자기 예수쟁이가 되어 집안을 발칵 뒤집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생각나는 몇 가지 일을 적어봅니다. 제가 인북유치원 관리과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형님은 인북유치원 3층 이사장실에 첩판을 가져다놓고 적어가며 원장과 원감, 직원과 교사들을 데려다 놓고 침을 튀겨가며 구원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형님이 왜 저러나 했습니다.

그리고 인북유치원 맞은편에 있던 방주교회가 성전건축을 하다가 재정에 어려움이 오자 그 교회의 두 장로님이 이사장인 형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좌어음을 끌어줄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형님은 당좌는 형사고발 될 수 있고,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난다고 하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부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 장로님들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당좌어음을 발행해주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형님은 유치원 버스와 교실과 강당을 방주교회에 개방해주셨고, 방주교회가 필요하다면 오후와 주일날은 교육관으로 유치원의 강당과 7개의 교실을 얼마든지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 원생을 택시가 가운데로 지나가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혼수상태로 있다는 소식을 들은 형님은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안수하며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깨어나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지만, 당시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서도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한번은 유치원 가을 운동회를 방배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는데, 전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비가 오는데 운동회를 하느냐고 계속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내일은 분명히 해가 날 것이니 걱정 말고 한다'라고 답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시고는, 부슬비가 오는 새벽부터 전 직원을 동원해서 삼 들고, 바가지 들고, 양동이 들고, 비가 오는 운동장에 가서 물도랑 내고, 구멍이 파고 물을 떠다 버리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짓이었죠. 그런데 아침이 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형님의 말씀처럼 햇볕이 쨍쨍, 운동회 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10시 즈음에 강렬한 햇볕이 비쳐 운동장의 물기를 다 빨아들여 운동장이 뽕뽕송송해졌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학부모 중에는 안 믿는 자들이 더 많았거든요. 학생 학부모 약 1,500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다'며.

형님은 사업은 뒷전이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간증을 하러 다니고, 트렁크에 먹을 것을 가득 채우고 전도하러 다녔으며, 크리스마스 때면 산타 복장을 하고 배낭 속에 굴이며 과자를 넣고 버스와

길거리를 다니며 예수를 믿으라고 외칩니다.

제가 지금도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술을 먹고 목사님께 욕을 많이 한 일입니다. 감히 막내인 제가 큰형에게 제삿날 술을 먹고 욕을 하고 발로 찼습니다. 어머니는 욕을 해댔고요. 그 길로 목사님은 집을 나가 유치원 지하, 온실, 남의 집을 떠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날 집을 나가시면서 제게 한 말씀입니다. "두고 봐라. 너는 꼭 목사가 될 거야."

그 말씀대로 저는 목사 안수와 함께 이 역사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항상 생각건대, 이시대 형님 목사님은 제 뒤통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부끄러움 뿐입니다. 그러나 큰 형님 목사님은 늘 나에게 '너는 대기만성 할 사람이야. 언젠가는 역사의 중심에 설 것을 확신한다.', 이 말씀이 다시 시작하는 30년에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대전예수중심교회
이역사 목사